

18차시

학습 목표

탐구를 통해 성찰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 습관

협력적 태도를 지녀요.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생각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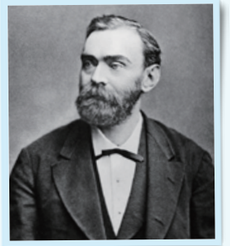
차시 지도 유의 사항

- 우리의 노력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노력이 위로가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우리 모두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각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의미를 되새기며 지도한다.

수업 PPT

동영상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 사람의 이해와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화학자, 노벨

스웨덴에서 태어난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은 1853년~1856년 크림 전쟁을 겪은 후 산업용 폭탄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고, 1887년에는 앞서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욱 강력한 '발리스타이트'를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부자가 된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고,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이후 자신의 재산을 인류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였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정치인, 김대중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은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늘의 영광은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다. 우리 국민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을 성원해 준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1970~)은 책을 쓰는 것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고, 인간의 폭력성과 존엄성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질문을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야기를 읽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글 속에서 찾아 ○표해 봅시다.

생각 톡톡

학습 내용 정리

생각을 통한 감정 변화하기

-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긍정적인 감정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내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성장한 의미로 수료증을 만들어 스스로를 칭찬해 봅시다.

나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3가지를 활동 자료 5 에서 골라 수료증 위에 붙여 봅시다.

수료증

탐구 영역: 지속가능 발전목표

탐구 주제: 지구촌에서 슬기롭게 살아가기

이름: 홍길동

나는 앞으로 어떤 성장을 더 이루고 싶나요?



202□. □. □.

_____ 초등학교

탐구 나침반

성공적인 배움에는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가짐(Growth Mindset,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자기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나친 칭찬은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을, 과도한 비판은 '그럴 줄 알았어, 난 못해.'하며 시작부터 포기하려는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에게 좋은 코치가 된다면 **잘한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고칠 점은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지나친 칭찬이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①, ②, ③의 입장이 되어 성장을 위한 자기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내가 처한 상황

수학 시험을 치는데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서 찍었다. 그런데 기대한 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1 가혹한 심판관

어차피 100점도 아니잖아? 완벽하지 못해서 속상해.

2 무조건 칭찬하는 추종자

난 수학 천재야. 어쩐지 정답처럼 보이더라고.

3 공감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지도자

정말 운이 좋았어. 비록 실력으로 맞힌 점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훌륭해. 그렇지만 사실 틀렸어야 할 문제이니까 오답 노트를 꼭 해서 다음에 또 나온다면 실력으로 맞힐 테다!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활동 자료 6 에서 골라 붙여 봅시다.



고정 마인드셋

- 도전을 피하고 안전하거나 쉬운 과제를 선택함.
- 실수할까봐 걱정함.
-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를 피함.



성장 마인드셋

- 더 많이 도전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극복하려고 애씀.
- 실수를 통해 적응하고 배움.
-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함.

●●● 성장 마인드셋을 나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너무 힘들게 괴롭히지 않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적당함과 긍정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습관
다양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질문해요.

탐구 톡톡

나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1 나의 마음 습관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써 봅시다.

나의 마음 습관	탐구를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했나요?
협력적 태도를 지녀요	• 성찰 한 줄: 모둠 토의할 때 속도가 느린 친구에게 빨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 다짐 한 줄: 친구를 재촉하기보다는 도와줄 것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2 이번 탐구에서 나의 학습 습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기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내가 처한 상황

질문 만들기를 할 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친구가 쓴 내용을 보고 베껴 썼어.

1 가혹한 심판관

원래 난 공부도 탐구도 그다지 잘 못하잖아. 머리가 나쁘면 원래 고생하는 거야.

2 무조건 칭찬하는 추종자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질문은 베껴 썼지만 내 보고서가 훨씬 예쁘고, 자료도 훨씬 많아.

3 공감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지도자

내가 아직 질문 만드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선생님께 찾아가 방법을 다시 물어보고 연습도 해보는 거야.

탐구 디딤돌

내 머릿 속 고정 마인드셋을 찾아 바꾸어 봅시다.

칭찬도 지나치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칭찬,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지 선택해 봅시다.

고정 마인드셋을 나타내는 말(행동)의 예시

양자택일	문제가 어려울 때 나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행위
☑ 난 평범해. / 특별해.	☑ 이건 너무 어려워. / 너무 힘들어.
☑ 난 아는 것이 없어. / 천재야.	☐ 그냥 쉬운 것만 하자.
☑ 난 소질이 없어. / 최고야.	☑ 실수할까 봐 걱정 돼.
☐ 난 매력이 없어. / 완벽해.	☐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 난 나쁜 사람이야. / 좋은 사람이야.	☐ 내가 힘들어 하는 걸 남들이 알면 안 돼.

공감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지도자 되어보기

❶ 난 평범해. / 특별해. →	난 평범하지만 특별한 구석이 많아. 예를 들어 외모는 평범하지만 종이접기를 할 땐 누구보다 완성도 있게 만들지.
❷ 난 매력이 없어. / 완벽해. →	매력이 있다거나 완벽하다는 건 사람마다 모두 기준이 다른 거야. 남들의 기준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❸ 이건 너무 어려워. / 너무 힘들어. →	나에게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는 당장 해낼 수가 없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연습해서 극복해야 하는 거야.
❹ 실수할까 봐 걱정 돼. →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게 된다면, 그건 운이 없는 것이지 최소한 나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말자고.
❺ 내가 힘들어 하는 걸 남들이 알면 안 돼. →	중요한 건 '남들이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거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 봐.

성찰 톡톡

탐구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 이번 탐구를 통해 생각이 어떻게 자랐나요?

탐구를 통해 발견한 나의 강점은

완벽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친구의 강점은

조금 늦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마무리하는 것 **입니다.**

➔ 이번 탐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성장하고 싶은 부분을 스스로에게 응원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안녕? 나야.
이번에 탐구를 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
친구들과 의견이 달라서 못마땅해하거나 혼자 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혼자서 하는 건 이번 탐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선생님과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 수업하는 것,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번 탐구를 통해서 지구촌 문제라는 커다란 주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어.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많았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나와 관련이 깊은 문제들인지 이번에야 새롭게 깨닫게 된 것도 사실이야.
모두의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을 보았어.
그렇지만 모두의 문제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해진 결말을 향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지 몰라.
아주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일지라도, 나부터 달라지고 변화해서 조금 더 건강한 하루, 건강한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조금씩 조금씩 잊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보자.